우원식 "답답하네…" 댓글공작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원 사직처리를 결정하는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 모습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뒤쪽)가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18일 추경·특검 처리 합의

42일만에 국회 정상화…수사 범위·특검 추천 구두 합의

의원 사직서 처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확정

여야가 14일 쟁점인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고 의원직 사직 안건은 이날 중 처리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김경수·박남춘·양승조·이철우)의 사직 안건을 처리, 6월1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2곳으로 늘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이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추경안을 5월18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검법을 처리한 후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의에 대한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본회의장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이 오늘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합의가 됐지만 일단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게 됨에 따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다.

이날 국회 정상화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 국회는 온종일 긴박감이 감돌았다. 특히 '의원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이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을 점거, 연좌 농성을 벌이면서 여야 간 몸싸움 가능성마저 제기돼 긴장은 고조됐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폭력 국회'가 재연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역시 오전 회의에서 '선(先) 의원 사직안 처리, 후(後) 특검 논의' 입장을 고수 이 때문에 오전 10시30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무위에 그쳤다. 이어 여야는 오후 늦게까지 거친 공방전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이 오후 5시 본회의장으로 향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본회의장 정문 입구에서 연좌농성 중인 한국당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장 정문을 피해 국회의장실 쪽 본회의장 입구로 입장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았고, 한국당 역시 구호로 민주당의 입장에 항의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한국당을 긴장하게 했다. 평화당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의원직 사직서 처리를 위한 의사정족수(재적 과반인 147명)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결국 파행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는 민심에 손을 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의당 전남지사 후보 노형태 전남도당 부위원장

정의당 전남지사 후보로 노형태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확정됐다.

14일 정의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노 후보는 오는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든다.

장흥 출생인 노 후보는 광주금속노조 조직국장, 장흥군농민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중앙 대의원, 정의당 농민국장·평화로운한반도본부 부본부장 등을 지냈다.

노 후보는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국정운영 100대 과제 등에서 여전히 소외된 농민과 어민에게, 재난 수준 실업 위기를 겪는 청년에게, 고용위기에 내몰린 대불산단 노동자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규모 쇼핑몰로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중소상공인에게,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정의당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노 후보의 출마로 전남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민주평화당 민영삼, 민중당 이성수 후보 등 4명이 경쟁하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도지사·군수·교육감·구의원 후보

이성수 "北 땅끝 양강도와 자매결연 추진"

이성수 민중당 전남지사 후보는 14일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땅끝 전남에서부터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남북 땅끝끼리 자매결연을 추진해 문화, 관광, 체육, 산업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공업, 해남 산이면에 농업, 고흥에 우주항공, 서남해안 일대에 어업특구를 조성해 북한 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에 나서겠다"며 "농어업특구 생산물을 북에 보내고 북에서 지하자원을 가져와 경제협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국 장흥군수 예비후보 사퇴…"박병동 지지"

민주평화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김상국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이 14일 사퇴했다. 김 전 조사관은 사퇴와 동시에 박병동〈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김 전 조사관은 이날 장흥군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장흥군수 출마를 위해 6년여 기간 준비해왔다"며 "하지만 그동안 온갖 술수와 배신, 음모와 모략, 뒤통수치기에 환멸을 느껴 군수 출마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조사관은 "평화당 관계자가 두차례 찾아와 '돈 없으면 군수 생각하지마라', '여론이 좋지 않아 공천을 줄 수 없다'는 등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시켜 더이상 평화당에 몸 담을 수 없어 탈당을 선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천경배 "선거 후 인사 보복 구태 청산할 것"

천경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14일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부 후보자의 공직자 줄세우기와 공직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선거 후 인사보복 등 구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공직자들이 선거 후 벌어질 인사상 이익, 불이익 계산 때문에 공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특정 후보자나 군수가 아닌 신안 주민들에게 줄을 서고 주민을 위해 일만 하면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사시스템과 군정 운영방침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천후보는 또 "공직자의 도서지역 근무환경 개선, 수당 현실화, 낙도 근무 공직자 인사 우대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석웅 "교사 교권보호 위해 조례 제정"

장석웅(63·전 전교조 위원장)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동반자적 개념"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남에서는 최근 3년간 274건 접수됐다"며 "실제 피해를 겪은 교사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의 방식으로 회피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충곤 화순군수, 재선 출마 공식 선언

구충곤(59) 화순군수가 6.13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충곤 군수는 14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에서 도의원, 군의원 후보 등 13명의 민주당 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구충곤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화순 사는 자부심'을 슬로건을 내세우며 첨단의료 복합타운을 조성해 화순을 세계적인 복지 선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물의약 산업벨트 구축 ▲경로당 급식 도우미 제도 전면 확대 시행 ▲농민수당제 도입 ▲그림책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 어르신들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 양묘생산기지 육성해 소득 증대"

박우량 무소속 신안군수 예비후보는 14일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이 따뜻한 천사섬 신안군을 양묘생산기지로 육성, 주민소득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재임당시 제정한 '경관조성 관리지원 조례'를 근거로 양묘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군수 재임시절 '천사섬공원화사업'의 항구적인 기반시설을 위해 양묘생산자를 자체적으로 양성, 조례를 제정해 250여 농가에 양묘구입비와 식재비 등을 군비로 지원했다. 또 '천사섬공원화사업'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0여 양묘농가에서 가꾸고 있는 수목과 경관식물에 대해 감정평가 후 일괄매입하고 판매운송비와 작업비도 일부 지원했다.

김희수 "지방자치 실현" 본격 선거전

김희수 무소속 진도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민 전 목포경찰서장, 김승이 진도군의회 의장, 김용선 예총회장, 지역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는 "군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진도군민의 자존심과 다수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공천'이라는 자부심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농수산 중심 행정 ▲연령별 청년과 귀농귀촌 집중 지원 ▲품격있는 문화 관광도시 ▲세대별 맞춤형 노인복지 ▲군민 행복 복지공동체 ▲안전한 도시환경 ▲군민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등을 내놨다.

김은규 "5·18 왜곡 서주석 차관 해임해야"

김은규 민중당 광주 북구의회 3선거구(풍향동, 문화동, 두암1·2·3동, 석곡동) 예비후보는 14일 "5·18 진실을 왜곡했던 서주석 차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5·18 당시 군부에 의해 성폭력 등 고문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사실이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피해자의 증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가 역사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주석 차관과 동반 사퇴하라 더 나아가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오광록·장흥 김용기·화순 조성수 기자 jwpark@